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을 경축하는 군민청년 대합창공연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 성황리에 진행

위대한 태양민족의 넋이 깃들어 있고 조선혁명의 깊고도 억센 뿌리가 내린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숭엄히 솟아 빛나는 백두전구에서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이 터치는 승리의 선언이 힘있게 울려 퍼져왔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청년강국의 상징으로 일떠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한데 이어 주체혁명의 계주봉을 상징하는 최불봉과 《영웅청년》이라는 글말이 새겨진 1호발전소 인제앞에서 군민청년대합창공연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가 3일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공연장소는 백두산칼바람에 뚫을 달고 주체혁명의 불변의 침로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영웅청년들의 전투적 기상과 위훈을 힘있게 떨치며 주체조선의 자랑스러운 청춘기념비를 모란듯이 일떠세우고 승리의 개가를 하늘땅이 들썩하게 터치게 된 열렬청춘들의 끝없는 긍지와 환희로 새 차가 뚫어 버리고 있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공연장소에 나오시었다.

발전소건설을 위한 격전의 나날에 꿈결에도 그리며 자나깨나 안고 싶었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뵈옵는 순간 전제 출연자들은 쏟아지는 눈물로 두볼을 적시며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 울러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과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시며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 정력적인 병도로 조선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그들은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제 출연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서 불멸의 위훈을 창조한 그들을 축하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



남동지, 최룡해동지, 최태복동지, 김양건동지, 광범기동지, 오수용동지, 김평해동지와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상원 량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청년동맹일군들, 발전소건설에 기여한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이 대합창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은 설화와 대합창 혁명송가 《김정은장군찬가》로 시작되었다.

절세의 위인칭송의 숭엄한 선율이 은은히 흐르는 속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완공하여 삼지연군

의 전기문제를 풀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을 관철하였다는 충정의 보고를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삼가 드려왔다.

출연자들은 탁월한 예지와 정력적인 병도로 우리 혁명과 청년운동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억세게 전진시켜나가는 백두산대국의 존엄이시고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는 천만군민의 끝없는 충정의 마음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주체의 대업을 사랑의 억센 힘으로

이끌어 인민의 제일락원, 밝은 미래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강대한 조선의 기상, 눈썹은 조선의 심장, 눈부신 세기의 태양으로 받들어 나갈 천만군민의 불타는 충정의 수령송가, 위대한 장군찬가가 장엄하고 격조높이 터져올라 백두의 하늘가에 메아리쳤다.

완공의 오늘 우리 청년들이 강성국가의 문명을 제일먼저 달게 하시려고 이 세상 주실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다 안겨주신 어버이장군님이 못 견디게 그리워 금수산 태양궁전의 하늘을 우러르며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목매여 부르는 출연자들의 노래는 관람자들을 뜨거운 격정에 휩싸이게 하였다.

그리움의 대하, 경모의 정이 더욱 뜨겁게 설레이는 속에 무대에는 대화시 《태양의 품》, 녀성중창 《그이 없인 못살아》, 대합창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의 종목들이 펼쳐졌다.

출연자들은 외국방문을 마친 길로 불편하진 몸이었지만 산세협한 발전소 건설장까지 찾아주신 어버이장군님의 사랑과 정으로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선화를 창조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의 품은 이 땅의 평범한 청년들을 당정책관철의 맹장, 창조자의 거인,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주시는 영원한 삶의 품이라는것을 감동깊게 노래하였다.

녀성5중창 《금방석》에서 관람자들은 우리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 당의 길동무로 불러주시며 금방석에 앉혀주시기 위해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신 백두산천출위인들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위대한가를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다.

대합창 《조선청년행진곡》, 남성중창 《타오르라 우등불아》, 녀성중창과 방창 《우리의 래일이 말해줄거야》, 혼성2중창 《내가 지켜선 조국》, 금관중주와 대합창 《청춘들아 받들자 우리 당을》, 극이야기 《백두청춘대학》에서 출연자들은 백두대지에서 인생의 첫 출발을 메고 애국의 피와 땀을 바치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지닌 사상과 신념의 강자, 청춘대학졸업증을 받은 당의 참된 청년전위로 성장한 나날들을 감동깊게 펼쳐보이였다.

항일혁명선렬들의 혁명적투쟁기공과 광만, 생활기쁨을 따라배워 선군청년문화를 꽃피워온 백두청춘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무용과 기악합주, 북춤으로 흥겹고 경쾌하게 형상한 기악합주와 대합창 《가리라 백두산으로》는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5 면 으 로 계 속

